

5. 복층림의 조성·관리

비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수토보전기능(水土保全機能)과 풍치보전기능(風致保全機能)등 공익적 기능이 어우러진 임업경영상 유리한 생태적인 시업법이다.

복층림사업은 복층림으로 조성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단목택벌과 대상벌채에 의한 방법으로 조성한다.

가. 단목택벌(單木擇伐)에 의한 조성

(1) 대상지

(가) 입지 조건이 양호하고 집약적인 산림관리가 가능한 V영급 이상인 임지로 우량대경재 생산이 가능한 임지

(나) 침엽수림은 ha당 300본, 활엽수림은 ha당 200본 가량의 우량대경재를 최종 수확할 수 있는 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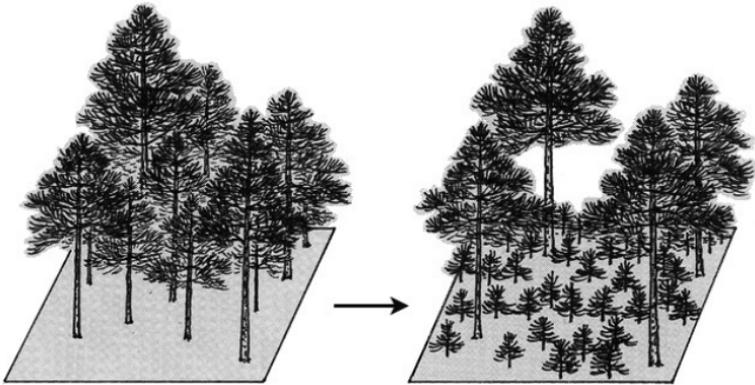
(다) 공익기능 유지 및 입지 조건 상 모두베기가 부적당한 임지이다.

(2) 조성방법

(가) 최종 수확본수가 ha당 200~300본 내외가 되도록 조절 하되 임분 내에 고루 배치한다.

(나) 상층목에서 2m 떨어진 공간에 1.8m 간격으로 수하 식재를 한다.

(다) 천연하종갱신이 가능한 임지는 갱신상을 조성하거나 움짝갱신, 수하식재(樹下植栽)와 병행할 수 있다.



〈그림 99〉 단목벌채에 의한 복층림 조성

나. 대상벌채에 의한 조성

(1) 대상지

(가) 녹화조림지 중 임분전환(수종전환)대상, 병해충 피해지, 임목형질이 불량한 임지 중 임분 전환 또는 수종갱신이 필요한 임지

(나) III영급 이상의 조림지, 형질이 불량한 활엽수림, 15년생 내외의 현사시나무 조림지

(다) 인공림의 일반소경재와 천연림의 특용·소경재 생산 임지

(라) 공익기능 유지 및 임지 조건 상 모두베기가 부적당한 임지이다.

(2) 조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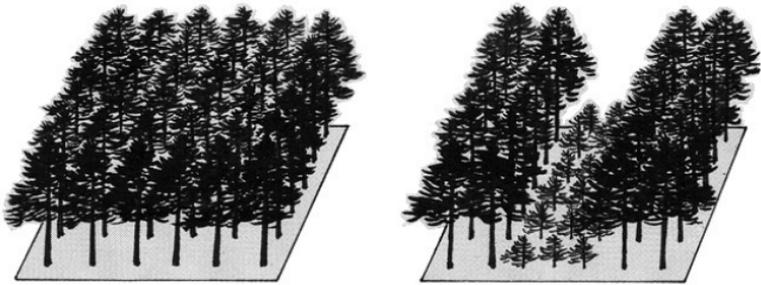
(가) 식재열을 기준으로 3~5열을 교호로 2회에 걸쳐 대상 벌채하여 갱신을 완료한다.

(나) 잔존구에 대한 벌채는 벌채구내 식재목이 하층식생(지피식생)의 영향을 벗어난 이후부터 가능하다(식재목과 지피식생과의 경쟁이 해소된 후).

(다) 잔존대로부터 2m 떨어진 벌채대 내에 1.8m×1.8m 간격으로 식재한다.

(라) 식재목이 하층식생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에 잔존대를 벌채한다.

(마) 천연갱신이 가능한 임지는 갱신상을 조성하거나 움짝갱신, 식재조림을 병행할 수 있다.



〈그림 100〉 대상벌채에 의한 복층림시업 방법도

다. 숲가꾸기 방법

숲가꾸기는 ‘Ⅲ.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의 ‘1. 인공림의 조성·관리’ 및 ‘2. 천연림의 조성·관리’에 따른다.